

“추석맞이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공무원·자생단체 회원들, 온누리상품권 구매·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개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 행사를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시는 21일 신중양시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직원들과 자생단체 회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절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또한, 이날 신중양시장에서는 전북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형 온누리상품권 이동 판매행사도 진행됐다.

이날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 행사에서는 시 산하 직원과 자생단체 회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이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들은 이날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오는 28일까지 나흘간 전주지역 전통시장에서 이번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순차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전통시장에서는 더욱 풍성한 추석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특별이벤트와 할인판매, 경품 지급 등 다양한



21일 신중양시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직원들과 자생단체 회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절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신중양시장에서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송편 무료 나눔과 즉석 경품추첨 등이 추진된다. 모래내시장과 풍남문상점가는 각각 21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온누리상품

권 환급행사와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모래내시장에서 진행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27일 행사 종료 후 10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며 “시민들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형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전북은행·농협·우체국·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시중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추석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인별 구매 한도가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되고 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김옥기 기자

“청소년 마약범죄, 선제 대응 절실”

온혜정 전주시의원, 전북지역 10대 마약사범 검거 늘고 있어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지역 사회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전주시의회 온혜정(우어·2, 호성동(사진)) 의원은 제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교육 현장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 의원은 밝힌 전주지검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0건이었던 것이 2021년 3명, 지난해는 4명으로 늘었다. 더욱 큰 문제는 마약범죄가 공식 집계가 어려운 ‘암수범죄’라는 점으로 실제 마약의 유통에 빠진 청소년들



은 검거 건수보다 30배 정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 의원은 “전주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과 예방이 이뤄지도록 하고, 맞춤형 예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경찰청, 교육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예방 및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시민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촉구

전주시의회가 21일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우어·2동, 호성동, 부의장(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새만금 잠버리 대회의 파행을 두고 책임을 전북도 탓으로 돌리기 급급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새만금 SOC 예산을 78% 삭감했다”며 “이는 새만금 사업을 잠버리와 무리하게 엮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180만 전북도민의 열원과 열망이 담긴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전북 흥대와 지역 불균형 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외정실, 각 정당,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추석 연휴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황금연휴 기간에 귀성객과 시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공단은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 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6일간 한옥마을 주차장(1, 2, 3, 노상)과 시내 오거리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24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한옥마을 등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주차장 5곳을 제외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다. 무료 개방 주차장 수는 지난 설 연휴에 비해 2배로 늘었다. 6개에 불과했던 무료 개방 주차장 수를 지난 설 연휴 12개로 늘렸고, 이번 추석에도 2배로 늘려 사실상 모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게 됐다.

인구 밀집 지역과 도심 대학가,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이들 주차장의 무료 개방으로 귀성 차량 운집에 따른 주차난이 해소되고, 시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이지콜’과 마을버스 ‘바로온’은 추석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한다. /김옥기 기자

지속가능 전주시 평생학습 미래 청사진 그린다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인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중장기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주시는 21일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과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 용역은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적용할 전주시의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전주시 평생학습 요구 조사 결과 △평생학습 미래 비전 및 추진 전략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균형 있는 전주시 평생학습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평생학습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계획과 전라북도 평생학습 중장기진흥계획 등과 방향을 맞추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사업과 지역대학과의 협력방안, 특수시책 개발 등이



전주시는 21일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과 평생학습 기관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담길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책임자인 권인택 전북대학교 교수는 △보편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인문학도시로의 체제화 및 고도화 △고등평생교육 전문화 및 체계 구축 등 5대 발전 목표를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시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11월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권인택 전주시평생학습관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커가는 시점에서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 개발과 전주시의 현실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 준비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평생학습 청사진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체계 가동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시는 21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연휴 기간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와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연휴 전인 오는 27일까지는 연휴 기간 관리인력 부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인력을 운영한다.

이어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는 공업지역 주요 배출사업장과 전주천, 삼천 등 주요 하천 인

근 취약지역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집중단속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활동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는 각각 비상상황실이 설치되며, 감시 시각 시간대에 이뤄지는 불법행위나 환경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 접수 시 즉각적인 방제조치에 나서는데 발 빠른 초동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키로 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불법행위나 오염 사고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063-128) 또는 시청 상황실(063-281-222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